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1-5]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양이 뜨는 것을 보십시오.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빛은 있는 곳에 어둠이 설 곳은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창세기 1:3b).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그 빛이 다시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린도전서 4:6). 크리스마스 날: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취진 날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세상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연민 그리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태양이 밝게 비추는 것처럼 밝게 앞을 비춥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5b).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c).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돌보며 사랑한다. 그의 말씀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드러냅니다. 처음과 나중.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1-2). 크리스마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분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골로새서 1:16-17은 이렇게 말합니다.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16-17).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 더 있습니다. 그 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생명의 호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7-29). 우리는 이 빛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빛 없이는 우리는 어둠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먼 죄인들이 빛을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참 빛이 오면 어둠은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5).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분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그들을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4). 우리는 이 빛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